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⑥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8월 24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08. 24



안산, 무더운 여름동안 고마웠어
낭만적인 가을도 부탁해

신성장 동력! 마이스산업

안산에서 9월 2016 PNLG 국제컨퍼런스 개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의 차이?

자녀 진로고민 여기서 해결하세요

제1회 자유학기제 · 진로축제

안산에서 취업걱정은 뚝!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면 '희망 일 드림'에 상담하세요



황금알을 낳는 마이스 산업! 안산이 먼저 됩니다

9월 4일, PNLG 국제 컨퍼런스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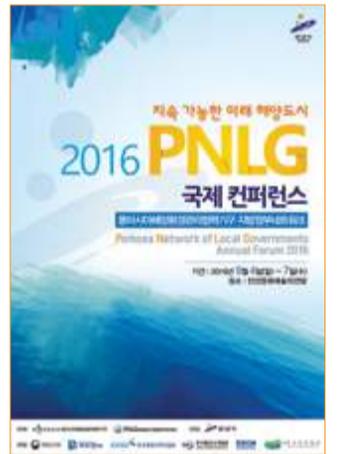
PEMSEA, PNLG 44개 도시대표단, 옵저버 등 참가 확정

안산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지속 가능한 미래 해양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아시아 9개국 4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016 PNLG(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15년 총회에서 차기 개최도시로 안산이 선정돼 진행되어 왔으며 동아시아해의 해양환경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PEMSEA(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의 지방정부네트워크 연차총회로 매년 회원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또한 기술워크숍, PNLG 총회, 시장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며, 해양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참여 도시의 홍보부스도 동시에 운영된다.

기조강연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이해와 PNLG와의 연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인 발라즈 호르바트 씨가 맡기로 하였으며 각 국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례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해양자원은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원”이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마이스산업과(031-481-2123)

MICE는

- M Meeting 회의
- I Incentive tour 포상관광
- C Convention 컨벤션
- E Exhibition 전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MICE 참가자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 체류기간은 1.4배에 달할 만큼 관광업계에서는 황금산업으로 불리우고 있다.

MICE 산업은 산업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MICE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기획사, 개최지,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도 연계되어 있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더욱 크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안산시, 지난 7월부터 ‘생활임금제’ 시행해

시간당 7,040원(월 1,471,110원)으로 산정

안산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生活賃金制)’는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안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안산시 생활물가를 반영해 시간당 7,040원(월 1,471,110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6,030원)보다 16.7%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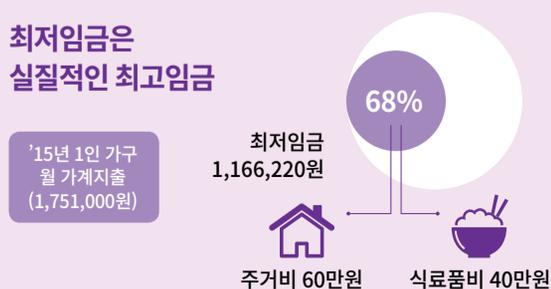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통계청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9)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소득불평등 심화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최고임금



<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및 생활물가 적용 생활임금액 : 7,040원(최저임금의 116%) >

초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진영단 씨는 “2009년부터 공공근로 등 안산시 관련 업무를 해 왔어요. 현재는 인감·등초본 발급 등 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받다가 생활임금제 덕분에 지난달부터 20여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일의 능률도 오르고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 → 향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용역까지 단계적 확산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생활임금제 관련조례를 제정해 올 7월부터 안산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341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안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업체 등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안산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2일(금), 3일(토) 이틀간 신안산대학교에서 '제1회 잡어드림 자유학기제·진로 축제'를 연다. '꿈 찾고 행복 Job자!'라는 슬로건으로 여는 이번 축제는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교, 지역 유관기관과 상호 연계해 개최하는 통합 진로·진학 체험 축제로 진로문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 초청강연회, 전문직업인이 참여하는 직업체험 부스, 대학·특성화고 학과체험 등을 운영한다.

문의 :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031-412-4547)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꿈 찾고 행복 Job자!

'제1회 잡어드림(Job我dream) 자유학기제·진로 축제' 연다

첫째 날, 9월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안산대 체육관에서는 안산 지역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초청 강연회'를 연다. 1부는 여주대 김영범 교수가 진행하는 진로특강을, 2부는 판곡고 조만기 교사의 '2017 대입 수시설명회'를 한다.

둘째 날, 9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신안산대 상록광장에서는 개막식을 갖고 축하공연과 함께 본격적인 진로축제가 시작된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목양관 1층(광덕홀)에서는 '아름다운 나의 꿈' 발표대회에서 학생들이 꿈 에세이를 발표해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을 가린다.

상록광장에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특성화고등학교 체험관'과 '직업 체험관', '진로탐색관', '진로·진학 상담'을 운영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경기모바일과학고,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안산공업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경기자동차과학고(시흥), 군자공업고(시흥), 수원하이텍고(수원), 경기글로벌통신고(안양)가 참여해 로봇프로그래밍·바리스타·제과제빵·애니메이션·캐릭터디자인·IOT(사물인터넷)·RC카·드론·캘리그래피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안산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관·기업·대학 체험관'과 '신안산대 자유학기제·SAU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관·기업·대학 체험관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SAU 직업체험프로그램은 체험주제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기계설계기술자, 환경분석사, 제과제빵사, 회계사무원, 시각디자이너, 건축설계기술자, 멀티미디어제작·기업행정·국제경영·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진로탐색관'에서는 홀랜드 간이 진로검사, 다중지능 검사, MBTI 성격유형 검사가 이뤄지며 현직 중고교 교사가 진로상담을 해준다. 고입과 대입을 앞둔 중3·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 부스도 마련한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홀랜드의 흥미 유형(R-현실형, I-탐구형, A-예술형, S-사회형, E-진취형, C-관습형)에 따라 분류된 직업군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산교육지원청 노선덕 교육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진로 축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학생 중심의 진로 생태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좀 더 구체적인 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용한 정보



제1회 와동 곤충체험 페스티벌 개최

일 시 2016. 9. 3(토) 12:00 ~ 18:00
장 소 와동공원 내
내 용 곤충체험 및 전시, 와동 역사 사진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 와동 주민센터(031-481-6631, 010-5721-0917)

외식사업아카데미 제17기 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2016. 8. 11 ~ 9. 4.
교육기간 2015. 9. 20 ~ 12. 6. (매주 화요일 15:00 ~ 17:00)
대 상 안산시 외식업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선착순 30명
교육비 무료
교육기관 (재)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위치: 중앙역 건너편)
• 상록구 환경위생과(031-481-5234)
한국외식업중앙회안산시상록구지부(031-438-2600)

제3회 소상공인 창업기본교육 신청 안내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사업개시 6개월 미만 소상공인
신청기간 2016. 8. 19(금) ~ 9. 19(월)까지 150명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교육일시 2016. 9. 20(화) ~ 9. 21(수) 10:00 ~ 17:00(12시간)
• GSBC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가깝고 친근한 '희망 일 드림' 창구에서 일자리 찾아볼까

동네에 숨어있는 구인업체 발굴, 구직자 필요에 맞는 일자리 소개

각 동마다 배치된 전문 직업상담사들이 가까운 동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손이 필요한 업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해 6월 안산시 전체 25개동에 설치된 '희망 일 드림' 창구는 더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가깝게 취업상담과 구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희망 일 드림' 창구의 장점은 무엇일까? 일단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마다 설치돼 있어 주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좋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왔거나 복지제도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일자리 상담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희망 일 드림'은 적극적으로 동네에 숨어있는 구인업체를 찾아 주민들에게 연결해주고 있어 더 인기가 좋다. 직업상담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동네 지역점포와 자영업소를 직접 돌며 일자리를 찾아내어 사람을 급하게 구해야 하는 업체와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구직자를 연결해 주니 양측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희망 일 드림을 통해 취업성공률도 높아졌고 직업훈련도 현격하게 늘었다."며, "근접성이 높다보니 직업상담사들이 구직자들과 구인업체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 만족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다.



좌측부터 최철호, 최중현, 상담사 이인식씨

<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명단 >

연번	이름	동주민센터 연락처	비고
1	이진희	481-5680	일동 직업상담사
2	정미선	481-5751	이동 직업상담사
3	이은경	481-5722	사1동 직업상담사
4	고미정	481-5813	사2동 직업상담사
5	이정란	481-5717	사3동 직업상담사
6	김민정	481-5405	본오1동 직업상담사
7	조미영	481-5417	본오2동 직업상담사
8	전희진	481-5687	본오3동 직업상담사
9	장인숙	481-5728	부곡동 직업상담사
10	김인순	481-5416	월피동 직업상담사
11	김혜란	481-5714	성포동 직업상담사
12	한계숙	481-5821	반월동 직업상담사
13	김미숙	481-5684	안산동 직업상담사
14	권준화	481-6085	와동 직업상담사
15	이진우	481-6332	고잔1동 직업상담사
16	최경선	481-6511	고잔2동 직업상담사
17	최영옥	481-6532	호수동 직업상담사
18	김경자	481-6691	원곡본동 직업상담사
19	박행은	481-6757	원곡1동 직업상담사
20	김순단	481-6778	원곡2동 직업상담사
21	김영주	481-6824	초지동 직업상담사
22	김은례	481-6852	선부1동 직업상담사
23	송윤숙	481-6910	선부2동 직업상담사
24	주영미	481-6929	선부3동 직업상담사
25	이인식	481-6576	대부동 직업상담사

“일자리 많은 대부도, 생각보다 가까워... 편하게 지원해보세요”

특히 안산시청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도의 경우, 동에 설치된 희망 일 드림 창구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도에 일자리상담소가 처음 설치되다보니,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도 이런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주민들 반응이 뜨거웠다. 지난해 6월부터 대부동 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 창구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인식 직업상담사를 찾았다. 이전 대부도를 돌아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이 상담사는 이 일에 깊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전에는 대부도에서 일손을 구하려면 시청까지 나가거나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야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생기니 주민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세요. 이곳은 일한 만큼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일하는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이 상담사는 1년 동안 대부도에서 일하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던 상담에 대해 들려줬다. 한부모가정을 어렵게 꾸려가던 주민을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통사정을 해 퇴근 후 면접을 보게 돼 합격한 일. 30대 초반 바리스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엑스퍼트 연수원에 50대 전업주부를 취업시킨 일. 이 상담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국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도 소개하고, 동행면접도 함께 나가고 있다. “대부도는 거리가 멀다보니 일자리는 많지만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 열정을 갖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다.”

“자폐증으로 취업이 힘들던 아들, 기술을 배우며 희망이 생겼죠”

평소 서류를 떼러 동 주민센터에 자주 방문했던 최철호 씨는 희망 일 드림 창구를 발견하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취업 문제를 상담했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최중현 씨는 머리가 좋고 집중력이 있었지만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인식 상담사는 중현 씨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라 기계를 상대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기도기술학교의 훈련과정을 추천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훈련비, 기숙사비, 급식비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훈련수당도 나온다. 중현 씨는 지난 12월 경기도기술학교 첨단 기계학과에 합격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국가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열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격도 그전보다 더 밝아졌다. 최철호 씨는 아들 중현 씨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한다. “요즘은 사실 모두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중현이는 이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 희망이 있죠. 경기도기술학교에는 취업지원관도 따로 있어 중현이가 기술자격증만 잘 따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 상담사는 중현 씨에게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지, 공부는 재미있는지 삼촌처럼 세심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중현 씨가 졸업하고 취직하는 모습까지 꼭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달려라! 안산경제 동네가게 사용설명서



문의 : 지역경제과(031-481-2829) / 상록수 가구협회(031-439-1607)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좋은 가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자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9월 2일부터 열려

가구만 바뀌어도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 내가 원하는 예쁘고 아름다운 가구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2회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상록수 체육관과 가구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안산 상록수 가구거리 업체 45곳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가구브랜드들을 한 자리에 모아 새로운 트렌드와 다양한 디자인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특히 가구문화축제 행사기간에는 30~80% 할인된 가격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으니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원하는 분들은 한번쯤 방문해 봐도 좋겠다.

이번 축제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먹거리 부스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상록수가구기획전시회가 열리는 1층 전시장에서는 관객 참여 특별이벤트,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이 열리며 특히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많이 준비됐다. 대형 옷을 던져 각 지점에 따라 나오는 상품과 벌금을 받게 되는 복불복 옷놀이, 최고의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장만해 갈 수 있는 경매 이벤트, 짧은 음악을 듣고 곡목을 맞춰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상품을 주는 깜짝 노래방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안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과 가장 오래된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벤트 사은품을 증정하고, 주먹왕 가위바위보, 팍팍 오리등장 같은 다양한 게임을 시민들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다. 오전 11시에 식전공연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오후 3시 축하공연을 갖고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사회는 방송인 조영구가 진행하고, 축하공연은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한서경, 강수빈이 출연한다. 식전공연으로는 상록초난타팀, 상록중댄스동아리, 디자인문화고, 충효K타이거즈의 태권무 퍼포먼스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흥겹게 할 예정이다. 지역 가구산업의 위기 속에 가구거리 분위기 쇄신과 경기남부 중심 가구유통단지 이미지 부각을 목적으로 기획된 상록수 가구거리문화축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으로 든든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자전거로 건강과 친목도 다지고 환경문제도 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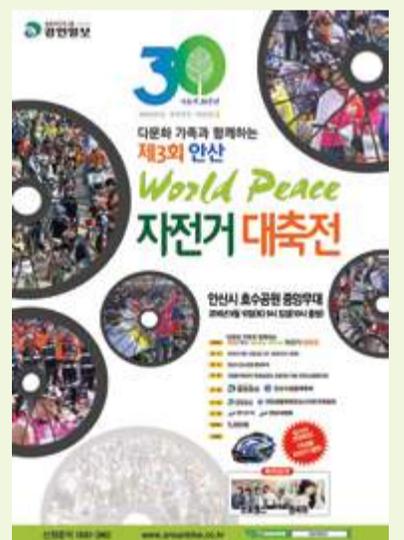
제3회 World Peace 자전거대축전 열린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제3회 World Peace 자전거대축전이 오는 9월 10일(토) 오전 10시 호수공원 중앙무대에서 열린다. 상급자 초급자로 구분해 비경쟁 퍼레이드로 열리는 자전거대축전은 안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안산시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한다. 참가비는 상급자 초급자 구분 없이 5천 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는 행사당일 바로 착용이 가능한 안전헬멧이 참가 기념품으로 지급된다. 퍼레이드는 상급자·초급자 코스가 나뉘어 있어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상급자 코스는 왕복 16km로 호수공원에서 시작해 중앙도서관, 와~스타디움, 화정7교, 광덕고, 안산 IC사거리를 지나 다시 출발지인 호수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초급자는 호수공원을 출발해서 사동 푸르지오 6·7차 아파트 옆 수변공원을 달려 안산스피드웨이까지 왕복하는 8km 코스이다.

이번 자전거대축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를 직접 보고 시승까지 해볼 수 있는 '이색자전거 전시와 시승'도 함께 마련돼 자전거 퍼레이드 외에도 안산시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 자전거를 타고 온 참가자들을 위한 '자전거병원'도 문을 연다. 자전거타이어 펌크 수리와 공기 주입, 기어변속과 브레이크 점검, 안장 핸들 높이 조정과 기타 자전거 밸런스 조정 등과 같은 간단한 정비가 제공된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자전거대축전은 자전거를 탐으로써 얻어지는 건강과 자전거를 타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산시민들이 자전거를 통해 서로 친목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세계 80여 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안산의 다문화가족과 안산시민이 함께하는 자전거대축전을 통해 이념과 인종을 초월하여 함께 하는 사회와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으로 환경문제도 줄여가자는 메시지도 담았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고, 3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 자전거 타기는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안산시는 2013년 공공자전거 '페달로'를 도입한 이후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전거 동호인들을 따라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구축, 자전거 안전교육·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전거대축전을 기다리면서 자전거 동호인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해 본다.



문의 : 교통정책과(031-481-2495) / 참가문의(1600-3962)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즐길 수 있는 별망성예술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안산예술의전당 축제광장에서 열려요



제30회 별망성예술제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축제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별망성예술제는 목숨을 바쳐 안산시와 국토를 지켜 온 조상들의 넋을 기리고, 축제를 통해 시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며,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삼아 화합의 한마당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7년부터 개최하였다.

학생사생대회, 백일장대회, 별망성지순례 등 진행

3일 토요일 낮 공연으로 오전 11시부터 학생사생대회, 백일장대회와 시민건강 게릴라대회, 톨아보기(별망성지순례 및 역사해설) 등이 진행된다. 학생사생대회와 백일장대회는 현장에서 접수하고 참여하면 된다. 별망성지 순례와 역사해설(오후 1시, 오후 4시)도 현장 접수하며, 해설을 들으며 별망성지를 돌아볼 수 있다. 저녁 8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개막공연으로 '천년안산' 갈라쇼가 펼쳐진다. 이어서 퍼포밍 불꽃쇼, 오리엔타쇼커스 축하공연, 가족캠핑, 캠프파이어 등이 이어지면서 별자리 찾아보기로 첫날 행사를 마무리한다. 4일 일요일에는 11시부터 전국 무용 경연대회(올림픽기념관), 역사탐험톨아보기(오전 11시~오후 2시), 시민장기자랑(사전 접수), 가요콘서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물놀이, 아트쇼 티움 등이 진행되며 시민장기자랑에는 입상자에게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축제광장 주변에서 숲과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별망성곽 재현, 쿨존체험, 다람쥐통통물놀이, 나만의 캐리커처, 옛날의상체험, 색동우산포토존, 무료사진촬영, 세계음식체험관 등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진협회 회원전, 별망성예술제포스터전, 시민별망소원불이 등 다채로운 부대공연과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별망성예술제를 총괄하고 있는 안산예총 김용권 회장은 "올해가 안산시 역사 30년 이듬 별망성예술제도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여서 시민과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축제장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도 즐기고 다양한 공연도 함께하는 즐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문화예술총연합회(031-485-3844)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시간	장 소	행 사 명	내 용	참 가 료	비 고
11:00	학생사생대회	학생사생대회	학생사생대회	특별감동	대중
11:00	백일장대회	백일장대회	백일장대회	특별감동	대중
12:00	시민건강 게릴라대회	시민건강 게릴라대회	시민건강 게릴라대회	특별감동	대중
13:00	톨아보기(1시, 4시)	톨아보기(1시, 4시)	톨아보기(1시, 4시)	특별감동	대중
13:30	안산갈라쇼	안산갈라쇼	안산갈라쇼	특별감동	대중
14:00	가족캠핑	가족캠핑	가족캠핑	특별감동	대중
15:00	시민장기자랑	시민장기자랑	시민장기자랑	특별감동	대중
16:00	가요콘서트	가요콘서트	가요콘서트	특별감동	대중
18:00	별망성지 순례	별망성지 순례	별망성지 순례	특별감동	대중
19:00	안산문화예총	안산문화예총	안산문화예총	특별감동	대중
20:00	퍼포밍 불꽃쇼	퍼포밍 불꽃쇼	퍼포밍 불꽃쇼	특별감동	대중
20:10	오리엔타쇼커스	오리엔타쇼커스	오리엔타쇼커스	특별감동	대중
21:10	가족캠핑	가족캠핑	가족캠핑	특별감동	대중
21:15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특별감동	대중
22:00	별망성지순례	별망성지순례	별망성지순례	특별감동	대중



별망성지(경기도 기념물 제73호)

조선시대 초기 남양만을 거쳐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인접한 두 곳의 얇은 산봉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돌로 쌓은 성이다. 석축성으로 높이 1.2~2.1m, 둘레 1,040m라는 기록이 있지만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성벽은 파괴되어 1988년에 길이 225m, 높이 1.45m, 상부 폭 2.4m, 하부 폭 10m 크기로 복벽과 서벽을 복원하여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출처 : 안산시사 4권, 두산백과

빛과 보릿대의 만남, 화려함과 은은한 아름다움

이보령 맥간 생활공예 전시 열려

빛과 보릿대의 만남인 맥간 생활공예전이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맥간 공예는 보리 줄기를 가공해 공예재료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맥간공예는 자연 고유의 소재로 모자이크 기법과 목칠공예기법을 합쳐 작품을 만드는 독특한 예술장르이다. 화려함과 은은함을 동시에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지닌 맥간공예는 보는 이마다 자개인줄 알았다며 신기해한다. 맥간 공예는 가공된 보리 줄기를 넓게 펴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퍼진 보리줄기를 도안 그림에 맞춰 붙이며 전체적인 작품으로 이어간다. 음영을 표현할 때는 접착시트의 색깔을 달리하거나 보리 줄기마다 약간씩 다른 색의 느낌을 이용해 표현한다. 같은 사이즈 작품이라도 보리줄기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작업 기간이 다르지만, 칠 작업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번 맥간공예전에서는 여인시리즈, 잉어와 연꽃, 독수리, 목단, 쌍학, 원앙과 연꽃, 호랑이, 공작, 4폭 병풍, 쟁반, 테이블 등 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현재 맥간공예 강사로 활동 중인 이보령 씨는 “오래전 TV에서 맥간 공예를 접했는데 버려지는 보릿대가 예술로 탄생된다는 게 멋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안산에서 맥간공예를 수강할 수 있어 배우게 되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맥간공예에 푹 빠져 산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주부로 살다가, 맥간 공예를 만나 나만의 세계를 찾아 나로 사는 것 같아 너무 좋다.”며 활짝 웃는다.

맥간 공예는 금빛을 담은 색상과 빛깔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며, 빛의 각도, 결의 방향에 따라 입체감과 미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

어른들에게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보릿대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지는 모자이크와 퍼즐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가 될 것이다.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치광대진정미



독수리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몸짓페스티벌 <얼토당토>



몸짓페스티벌 <소방훈련 시나리오>



몸짓페스티벌 <몸짓콘서트>



연극 대한민국 마지막 황태자의 정혼녀 민갑완

공연일시
8월 26일(금) ~ 27일(토)
금 8시 / 토 5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공연내용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2016년 신작공연 <얼토당토>는 한국의 전통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

공연일시
8월 31일(수) ~ 9월 1일(목), 8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공연내용
공연장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극장은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방화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극장의 설계 및 특징에 맞는 세부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정금형은 소방훈련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행동요령 및 대피절차에 대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연일시
9월 2일(금) ~ 3일(토)
금 8시 / 토 5시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격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공연내용
다양한 움직임 장르의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몸짓콘서트>는 공연계의 흐름과 핫 이슈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다. 특히 지난 2014년 안산 공연과 2015년 서울 아코예술극장에서의 전석 매진을 이끌어내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무용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공연일시
9월 30일(금), 7시 30분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공연내용
1863년 고종 즉위 후, 대한제국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일제강점기의 상처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 여인 민갑완의 삶에는 역사상 가장 불운했던 1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광복 70년을 맞아 일제의 숱한 정략에도 흔들림 없었던 그녀의 절개와 지조 있는 삶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일곱 개의 보물을 간직한 칠보산



이른 아침, 용화사 옆 계곡을 따라 등산로를 오른다.

1930년경 리기다소나무 조림지를 조성해 서울대에서 칠보산 학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칠보산은 계곡부에서 활엽수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끈끈이주걱, 통발 등 습지식물과 칠보치마 등 희귀식물이 자란다.

생태복원을 위해 줄을 쳐놓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은 숲이 무성하다.
비가 내리지 않아 물기 없는 나무들 옆에서 맥문동, 백도라지, 원추리가 반갑다.
고즈넉한 등산로에 물 흐르는 소리 대신 매미 소리가 한여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아까시 나무 천 그루가 심겨진 곳에 이른다.
아까시 잎을 떼어내며 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추억이 떠오른다.
아까시 과마를 한 아이는 계단을 오르며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는다.
아이는 어느새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뀐다.



“옛날 옛날에 팔보산에는 여덟 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 보물은 산삼, 맏돌, 잣나무, 황금수탉, 호랑이, 사찰, 장사, 금 이렇게 여덟 개였다. 어느 날, 도둑이 황금 수탉을 훔쳐 가려고 수탉에 손을 대는 순간 마른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쳤지. 도둑은 놀라 도망치고 황금수탉은 보통 닭으로 변해 죽고 말았어. 그 뒤로 여덟 개의 보물 중 하나가 없어졌다 해서 칠보산으로 불리게 된 게야”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칠보산(七寶山)은 안산시 사사동과 수원시 호매실동·당수동·오목천동, 화성시 매송면에 남북 방향 구조선을 따라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239m의 낮은 산이다.

소나무 길이 펼쳐진 산 능선을 걸으며 화성시 매송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천저수지 주변에 논밭이 펼쳐져 있다.

저 멀리 수원 방향으로는 광고산 아래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가 숲처럼 산을 에두르고 있다.

누군가 만들어놓은 새집 근처에서 곤줄박이가 재잘댄다.

둥지를 틀 큰 나무, 집이나 창고의 빈틈이 별로 없는 도시에서 박새, 곤줄박이 등

작은 새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 사이에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서민들처럼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내려오는 길, 아파트 옆 텃밭 고랑에서 자라는 가지와 고추를 보며

사람을 좋아하는 새 곤줄박이를, 칠보산의 전설을,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이야기를 생각한다.



작은도서관 '와동 책 읽는 방' 문화사랑방 역할 톡톡히

숲 속 재봉사 최향랑 작가와의 만들기 체험!

장미, 천일홍, 수국, 유칼립투스 등 다양한 식물로 알록달록 나만의 옷을 만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와동의 작은도서관 '책 읽는 방'에 넘쳐났다. 초록색 유칼립투스 잎으로 리본을 만들고 수국 꽃잎으로 드레스 밑단에 레이스장식을 하면서 아이들은 꽃잎 드레스와 조끼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덕인초등학교 4학년 김윤지 어린이는 커다란 장미꽃을 브로치처럼 가슴에 달면서 "예쁜 꽃으로 옷을 장식하는 게 무척 재미있다."고 말했다.

와동의 작은도서관 '책 읽는 방'에서는 지난 8월 10일 그림책 작가 최향랑 씨를 초청해 재미있는 체험 활동 시간을 가졌다. 최향랑 작가의 안내로 그림책 '숲 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를 읽고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주인공인 숲 속 재단사가 여러 동물들에게 아름다운 색의 식물로 만들어주는 옷을 직접 만드는 체험까지 해봤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색의 다양함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붉은색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붉은색을 가지고 있지요, 부모님도 아이와 함께 자연 속의 색을 들여다보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최향랑 작가는 말했다.

딸아이와 함께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박희주 씨는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인데, 도서관에서 준비해줘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우연히 작은도서관에 들렀다가 체험활동이 있는 것을 알고 참여했는데 아이가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서, 안 하고 그냥 갔더라면 좋은 경험을 놓칠 뻔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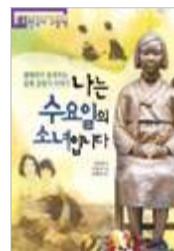


와동 '책 읽는 방'은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67.2㎡ 공간에 도서 1,500권과 LP판, CD 300종을 갖췄고 커피·주스 등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는 이음카페가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곳에 나와 책도 보고 차도마시고 이웃과 이야기도 나눈다. 또한 작은 음악회, 독서발표회 등 소소한 행사도 열려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책 읽는 안산 / 8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광복, 빛을 되찾다



나는 수요일의 소녀입니다

저자 안미란 / 출판사 개암나무

거칠게 뜯겨진 듯 잘려 있는 머리카락, 뒤통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맨발로 땅을 디디고 있는 평화비를 보면서 위안 부라는 아픈 과거를 들여다본다. 오목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덕혜옹주

저자 권비영 / 출판사 다산책방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덕혜옹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철저히 정치적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지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조국을 잊지 못했다. 그런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여성 작가 특유의 세밀한 필체로 그려내었다.



백범일지

저자 김구 / 출판사 돌베개

전문연구자의 원전비평에 기초한 정본 '백범일지'. 이 책은 친필 원본은 물론 등사본과 필사본, 여러 가지 출간본 등 여러 정본을 면밀하게 검토, 대조했다.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민족독립운동가이자, 자신의 전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겨레의 큰 스승인 백범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로보캡 순찰대원 체험활동 통해 책임감을 배웠어요”

안산시 로보캡 순찰대는 지난 4일과 11일, 경수중 외 8개 학교 20명의 중학생 대원과 함께 일일 로보캡 순찰대원 체험을 했다.

이 날 순찰은 학생들과 함께 우범지역을 새로 탐색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생대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통해 순찰대의 역할 홍보를 하기 위해 이뤄졌다. 폭염주의로 폭폭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원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순찰체험에 동참했고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경수중학교 2학년 정소연 학생은 “로보캡 순찰대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날이 덥고 힘들었지만 오늘 일일 체험을 해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순찰대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봉사하는지 알았습니다. 로보캡 순찰대는 우리 지역의 지킴이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고 했다.

안산시 로보캡은 이번 체험을 시범 운영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로보캡 순찰대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민간인 봉사단체로 상록과 단원 각 200여 명의 봉사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교 시간대에 2인 1조로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봉사대원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뜻이 있고 함께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파수꾼으로 같이 하길 기대해 본다.

☎ 문의 : 자치행정과(031-481-2054)

김 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우리 지역의 동호회

응답하라 드림팀!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꿈을 키워나가는 동산고등학교 동아리 ‘드림(DREAM)’

청소년 동아리 ‘드림’은 2006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 착한 생일상을 선물하는 동산고등학교 동아리 봉사단체이다. 현재 동아리 회원은 1학년(진세현), 2학년(박창조, 이수현, 신혜림, 채다솔, 김민아, 안형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달에 한 번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 댁을 찾아가 말벗도 돼 드리고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시간을 보낸다. 음식 만들고 프로그램 진행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찜통더위가 한창인 8월에도 드림팀은 어김없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모여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다. 낯선 친구들이 만나 서먹했던 분위기, 서툰 음식솜씨로 부끄럽기만 했던 학생들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는 손자, 손녀가 돼 정성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만든 음식은 시원한 묵사발과 멜론 빙수, 김치전이었다. 처음 보는 멜론 빙수에 할머니들의 눈은 동그랗게 화들짝, 처음 맛보는 맛이라며 활짝 웃는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걸 다 만들고 애썼다. 너무 맛있고 좋다”며 힘껏 안아 주셨다. 할머니의 짧은 말 속에는 깊은 고마움이 배어 있었고 음식이 조출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동산고등학교 채다솔 학생은 “비록 저희가 전달한 것은 작고 서툰 음식과 짧은 시간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는 순간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느껴져 힘들 때가 있는데 혼자라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고독할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집니다. 잠깐이라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동산고등학교 드림팀은 바쁜 학업에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10년의 동아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برا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 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 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세월호 참사의 가장 아픈 현장, 단원고 416기억교실 이전

눈물바다가 된 유가족 유품 정리의 날

2년 전 그날처럼 교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앓듯이 흘러나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던 416기억교실 임시이전을 앞두고, 유가족들이 아이들 유품을 정리하러 온 날이었다.

책상마다 꽃과 편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좋아했던 주전부리가 시간을 멈춰 놓은 것처럼 한가득 쌓여있는 교실. 부모들은 아이의 책상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면서 쉽사리 짐을 싸지 못했다. 상자에 물건을 힘겹게 넣다가 의자와 책상을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교실에 울렸고, 가슴을 치며 교실에 주저앉은 부모님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슬픔을 위로했다. 부모들은 아이물건이 하나라도 상할까봐 작은 메모와 사진 한 장까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시민들이 아이에게 남긴 방명록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메시지를 쓰기도 했다.

2014년 4월 16일에 시간이 멈춰버린 10개의 기억교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2년 전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 여타 평범한 고교생처럼 교실에서 웃고 떠들고 수업을 들던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10개 교실은 참사의 비극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기억교실은 분향

소에서 증명사진 한 장으로 만나게 되는 아이의 얼굴뿐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와 삶이 있는 공간이다. 교실을 비추는 햇볕과 창문 밖 풍경들을 보며 한 아이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당시의 간절한 기다림과 처절한 슬픔의 시간을 차곡차곡 기억해 볼 수 있었다. 단원고 기억교실에 있던 개인물품들은 지난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정리를 마쳤고, 개인물품 외 기록물들은

'4·16 기억저장소'와 자원봉사자들이 정리를 도왔다. 이렇게 기억교실에서 나온 상자들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옮겨진 후, 2년 후 '4.16 안전교육시설(가칭)'이 준공되고 나면 그곳으로 옮겨져 복원될 예정이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다시 찾은 빛... 8·15 광복절 71주년 경축식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얼 되새겨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영킨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35년간 나라를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감격이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광복절 71주년 기념식장에서 노래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의해 외교권을 잃고, 1910년 8월 29일 강제 병합으로 나라의 주권까지 완전히 빼앗겨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우리는 우리말도 글도 쓸 수가 없었고 젊은 남자들은 징병과 징용을 당했고 젊은 여자들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 군수업체 미쓰이 미쓰비시 등의 노동자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 이 때에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 바친 선열들이 있었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러한 선열들의 유족들로 이뤄진 광복회 안산시지회 회원 60여 분과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시민, 시 공무원, 시·도·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왕길 광복회 안산시지회장은 "민족의 축제인 광복절을 맞아, 일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셨던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광복의 빛을 원동력으로 삼아 민족을 하나로 묶는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반드시 이뤄내자"고 기념사를 했다. 광복회 안산시지회 정명근, 장치상 씨는 확고한 국가관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안산시 표창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8·15광복은 오로지 겨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안산은 곳곳에 독립투사들의 얼이 새겨진 충절의 고장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수암동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등 활발한 보훈사업을 전개해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애완견과 산책시
위생봉투 깜박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천주변에 위생봉투함 설치로
깨끗한 산책로 조성**

안산시는 생태하천인 안산천, 화정천, 건건천, 신길2천 하천변에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를 위한 위생 봉투함을 설치했다. 매년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늘어나지만 애완견과 함께 산책시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미처 위생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생태하천 산책로 진입 계단 및 경사로 입구에 총 13개의(안산천 6개, 화정천 5개, 신길2천 1개, 건건천 1개) 위생봉투함을 마련했다. 위생봉투 설치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설과(031-481-2944)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상생해 신뢰받는 의회로...

제7대 후반기 이민근 신임의장 소감 피력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상생하는 의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신임의장으로 당선된 이민근 의장은 안산시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민근 신임의장과 의 일문일답이다.



Q> 신임의장으로서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방향은?

A> 의장은 작게는 시의원 21명을, 크게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의회 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시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정치를 펼쳐가고 싶다.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는 점을 임기동안 실천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겠다.

Q> 후반기 의회 운영의 기본방향은?

A> 시의원들은 풀뿌리 민주 정치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당의 논리를 넘어 생활정치를 목표로 시민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게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구조가 의장 중심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지론이다. 의장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입법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 아울러 최근 시 집행부의 조직 및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8대 의회에서는 이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책적·법률적 토대를 준비해 나아가겠다.

Q>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A>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안산은 앞으로 100년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지역 재건축 사업, 신안산선과 소사-원시선 등 교통망 확충 등 안산의 도시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는 지역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안산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회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의정회, 의회 정상화를 위해 간담회 마련

즉각 현수막 철거하고 의회 정상화 노력키로 합의

안산시의회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의원들을 위해 일어섰다. 의정회는 지난 10일 안산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이민근의장과 김동규(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택(새누리당 대표), 송바우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관승(새누리당 부대변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정회 간담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대표들은 선배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한발짝 물러서서 의회가 정상화 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측은 즉각적인 농성 철회와 내·외부 현수막 철거를 약속하고 새누리당측은 김진희 의원의 부의장직 사퇴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 안산시의정회 등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시정현안 보고 및 간담회 개최

16일 ~ 18일 市 집행부와 연쇄 간담회... 주요사업 파악 '주력'

안산시의회가 최근 안산시 집행부와 연쇄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 동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 조정 진행상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 사동 구 청소년수련시설부지 활용계획 △ 고잔동 상가건물 매입제한 검토 △ 시민축구단 창단관련 진행상황 △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진행상황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안산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등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동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과 그 필요성에 대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잔동 상가건물 매입 제한 검토 안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상황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시 보조금 외 후원금 마련 방안과 창단에 대한 의회 및 시민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 창단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학교 부지 처리 문제와 토지대금 분할 납부, 외투기업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된 가운데 의원들은 지역 재건축 사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의 세밀한 조율을 주문했다. 3일 동안 연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포도 익는 안산

내 고향 안산도 포도가 익어가는 마을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산은 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숲의 향기가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포도가 유명한 곳입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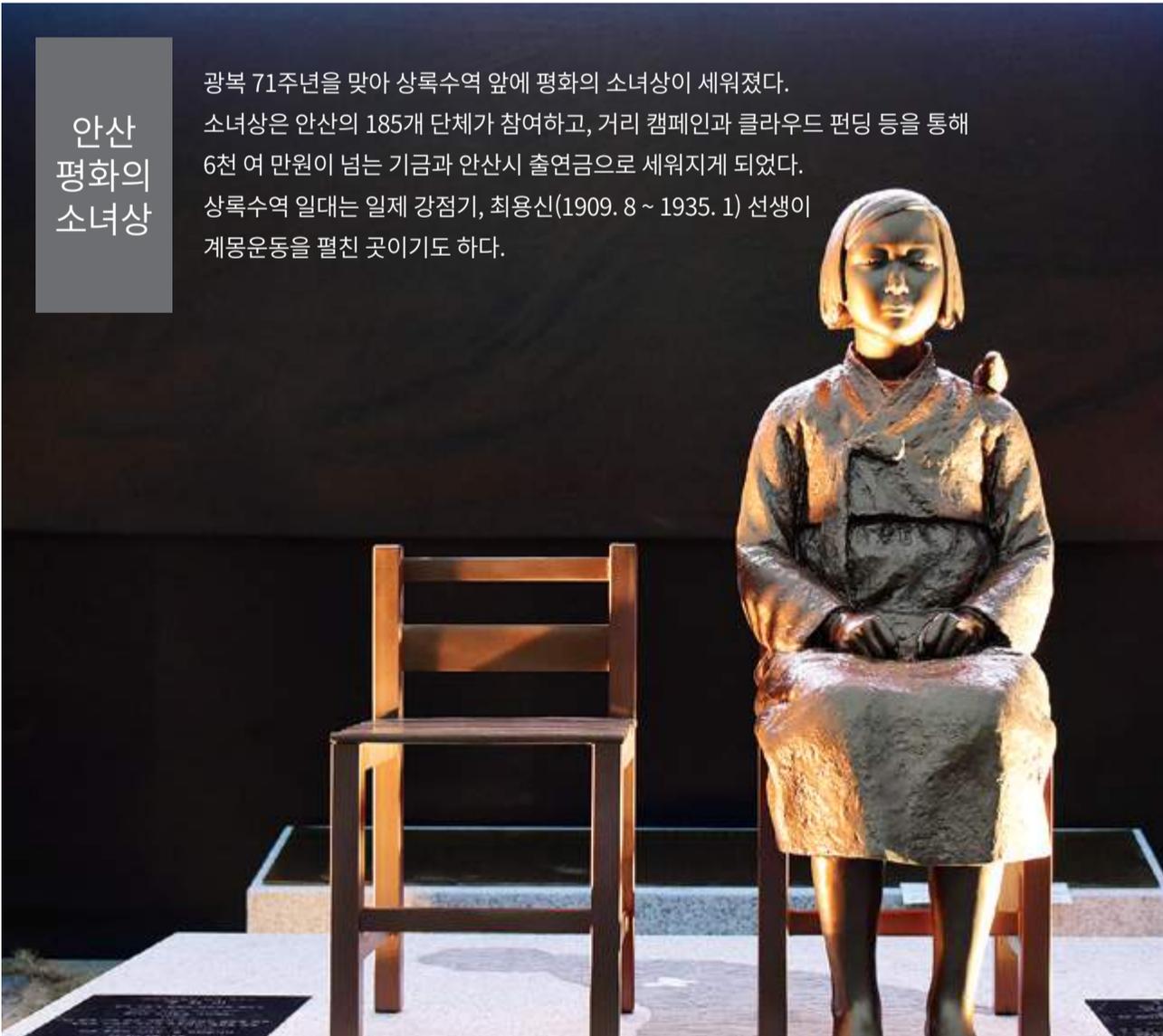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 평화의 소녀상

광복 71주년을 맞아 상록수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소녀상은 안산의 185개 단체가 참여하고, 거리 캠페인과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6천 여 만원이 넘는 기금과 안산시 출연금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상록수역 일대는 일제 강점기, 최용신(1909. 8 ~ 1935. 1) 선생이 계몽운동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도시를 디자인하다

요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제안되는 것은 도시디자인이다. 도시디자인이란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도시디자인은 아름답게 도시를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시설물의 아름다운 모양과 아름다운 색상을 사용해야 디자인이 잘 된 도시일까? 이에 대한 대답에 필자는 'NO'라고 말하고 싶다.

도시디자인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겉모습만이 꾸며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행복한 도시, 인간이 머물러 삶을 지속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질 곳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디자인은 도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YES'이다. 도시 디자인이란 타 도시와 구분하여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이는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진행이 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메니티(Amenity) 향상을 동시에 가지고 온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원으로써의 부가적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의 이미지와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분야를 막론하고 디자인작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키워드이다. 물건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작은 컵 하나를 디자인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 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오게 된다. 이러한 법칙은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사용자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말이다. 결국 공간은 단순히 보기 좋게 조성된다고 좋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발히 이용해야만 그 공간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론을 실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영국 런던의 서쪽에 위치한 브리스톨(Bristol)이라는 작은 도시이다. 브리스톨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도시를 탈바꿈하기 위해 시의회를 중심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도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가장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공디자인을 선택하였고, 양질의 도시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브리스톨 안내판의 경우 더욱 눈여겨 볼

만 하다.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화살표 방향을 설정하고, 브리스톨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진 자체 폰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읽기 쉬운 색상대비를 통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도시 안내판을 만들었고, 더불어 전통과 안전, 미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브리스톨은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 시민의 자존감 향상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안산의 경우, 이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라는 이미지 탈바꿈을 위해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디자인의 결과가 아닌 방법이다. 1~2년의 단발성 계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기본 원칙이 기반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잊지 않고 현재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재생사업이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살아 있는 도시 안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유나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이학박사)

보건소 소식

조부모·예비조부모 손주 돌봄 육아교실 참가자 모집

- **교육일시** 9월 21일 ~ 10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 **교육장소** 단원보건소 보건교육실(2층)
- **교육시간** 오전 10:00 ~ 12:00
- **신청기간** 2016년 8월 22일(월) ~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선착순 40명)
- **문의** 단원보건소(031-481-2552, 2563)



제6기 암예방도시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9월 21일 ~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 **교육장소** 상록수보건소 보건교육실(2층)
- **교육시간** 오후 14:00 ~ 16:00
- **신청기간** 2016년 8월부터 모집시까지
- **신청방법** 전화 접수(선착순 60명)
- **문의** 상록수보건소(031-481-5922), 암예방운동본부(031-402-2442)



독자투고

별망성을 보며

김태선(단원구 고잔동)

별망성 맑은 하늘이여
저 해안로 바다 내 마음 건드리네
나는 가슴 활짝 펴고
해안로 바다를 누비며 힘껏 달려가고 싶구나
나는 두 눈 부릅뜨고 성 돌에 앉아
성 아래를 쳐다보니 가슴 속 땀방울 흘러 내리네
성 바다가 만난 것처럼 출렁거리고
저 바다 기러기 성 하늘을 날개 펴 힘찬 소리 아름답구나
나 여기 있으며
몸부림쳐 지쳐 있어도 좋으니
별망성 해안바다 넘실거리다오
세계 성과 성 우러러 보며 별망성을 지켜다오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신길 역사유적 체험학습 안내자 모집

- 일 시 2016. 8. 25 ~ 10. 6(매주 목요일)
- 시 간 오후 14:00 ~ 16:00
- 장 소 셋별도서관
- 대 상 15명(활동가능한 여성)
- 교 재 비 15,000원
- 문 의 셋별작은도서관(031-492-2707)

안산여성문학회 문학강좌 2학기 수강생 모집 9월 첫 주 개강

- 모집인원 각반 10 ~ 15명
- 등록문의 010-3725-8786(총무), 010-5682-2672(회장)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nsanwl>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안산문인협회가 리드하는 안산평생문학대학 수강생 모집

- 대 상 누구나(인원제한 없음 / 초보자 우대)
- 장 소 안산시평생학습관 강의실
- 수 강 료 없음(소정의 회비 있음)
- 문 의 031-409-1877, 안산문인협회(031-405-5999)

제30회 별망성 백일장

| 별망성 백일장대회 |

- 일 시 2016. 9. 3(토) 오전 10:00 ~ 15:00
- 장 소 문화예술의전당 內 축제광장
- 대 상 초·중·고등부, 일반부(시제 당일 현장발표)
- 문 의 (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031-405-5999), 사무국장(010-3430-0700)

| 상록수 시 낭송대회 |

- 일 시 2016. 9. 3(토) 오후 14:00 ~ 16:00
- 장 소 문화예술의전당 內 축제광장
- 대 상 초등부, 학생부, 일반부
동시, 창작시, 기성시 중 1편(암송해서 낭송해야 함)
- 문 의 (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031-405-5999), 사무국장(010-3430-0700)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 일 시 2016. 8. 27(토) 10:00 ~ 15:00
- 장 소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 대 상 학생, 기관, 단체 등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주 관 안산환경운동연합(031-486-5105)

○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규칙

- 재활용품 판매자는 신분증과 돗자리 지참하여 신청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으며, 새 물건 판매 불가
- 총 50점 이하 판매만 가능, 판매가격은 1만원 이하 한정



안산시

대부분물섬! 가을 밤!
익어가는 감성포도

포도그리고 가을밤 작은음악회

일 시 | 2016.9.3.(토) 18:30~20:00
※부대행사 16:00~20:00

장 소 | 시화나래(T-light) 휴게소 달빛광장

문 의 | 생명산업과 031-481-2314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전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전기 감전사고 예방

전선이 물에 닿거나 손이 젖은 상태에서 전선 발견 시 절연장갑 착용 후 고장신고(국번없이 123)로 신고

전선주, 전선등 근처, 침수된 팬을 주위에는 누전차단기 없으므로 무해하거나 열의 열어지지 통행

낙뢰 시 에어컨, TV,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고, 외부에 있을 경우 안전한 건물이나 차안으로 이동

가정에서는 미리 누전차단기를 점검 (누전차단기 버튼을 누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야 정상)

감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119 전화 신고 후 요청이
실효되지 않는 불건물 이용하여
감전 요인으로 부터 분리

119 전화 신고 후 요청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

전기요금 할인제도 신청하세요!

다양한 복지합인 서비스로 공익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3차 이상 가구 (주거등록표상 3차 또는 '삼' 3번 이상인 가구)
할인내용 | 주석용 - 20% 감액 (월 12,000원 한도)
- ▶ 대가족 할인제도 (주거등록표상 5인 이상 가구)
할인내용 | 주석용 - 누진 1단계 감액 (월 12,000원 한도)
- ▶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할인내용 | 주석용 - 월 8,000원
-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할인내용 | 주석용 - 월 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할인내용 | 주석용 - 월 8,000원
- ▶ 차상위계층
할인내용 | 주석용 - 월 2,000원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신소발생기 인공호흡기)
할인내용 | 주석용 - 누진 1단계 감액
- ▶ 사회복지시설
할인내용 | 주석용 - 21.0% 감액, 일반용 - 20% 감액

한국전력공사 전기상담 국번없이 123
고객들의 전기상담 편의를 위해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